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  
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  
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  
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am

## 법공양 페이지

# 밖으로 달리 무엇을 믿을게 있나

### 17면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배달민족이 따로  
있는데 아니라 전체가 배달민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따로 따로가 아니라 같이 공  
용하고 공생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는 바로 무위세계 유위세계를 겸해서 중  
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니 평화롭게 발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안보이는 정신세계 공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  
해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육신  
이라는 집이 있고 그 집 주인으로 마음  
이 있다 하는데 그외에도 영혼이다, 혼백  
이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기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예전분들은 혼백이란 말을 썼고  
요즘 와서는 영혼이라 하지만 그게

### 몸 아플땐 잘 말걸리지 않아

스님께서는 물이 아픈 것도 주인  
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라고 하십니  
다. 그러나 저는 물이 아프다 싶으면 말  
기는 일보다 먼저 약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약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선이  
고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이지요.

자, 생각을 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형  
성시켜 놓고 지금 자동적으로 작용케 하  
는 요법을 말합니다. 어쨌거나 나를 이러  
게 움직이게 하는 장본인은 내 속에 있  
다 이 말입니다. 속에 있다니까 처음 듣  
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  
는데 무슨 눈 달리고 귀 달린 뿔이 있다  
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불씨를 지니고 태어나는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 “불성은 마음따라 에너지 배출 선하게 쓰면 선한대로 악하게 쓰면 악한대로 돌아가지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  
면 육신과 영혼, 그리고 생명의 불씨인  
에너지를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원소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마음을 잘 쓰면 선한 영혼이요, 악하게  
쓰면 악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렇고 이걸 분리해서 따로따로라고 보  
아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를 갈라 놓고 보려고 하는데 본래는 둘  
이 아닙니다.

각기 역할이 뭐냐고 하는데 사람의 불  
씨는 항상 밝아서 영원하지만 과거에 어  
떤 마음을 냈느냐에 따라 '영혼의 업식'  
이 제각기 현실로 나오게 달리 보일뿐  
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가고 업식만 남는다고 하지만  
살아 있을 때 그걸 따로따로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영혼이다 혼  
백이다 업식이다 하는게 다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구분이 아니라 찰나  
찰나에 내 내면에 나오는 것까지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은

불교서적을 읽다 보니까 번뇌에  
는 크게 세번뇌와 추번뇌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  
떤 것입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우리  
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일  
거수 일투족이 다 입력이 되었다가 현실  
에서 술술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풀려 나오는 중에는 번뇌라고 이름 붙일  
경우도 있겠고 선한 것 악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닌 경계도 있겠지요.  
그게 다 내 탓입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 나온 구멍이 찢려 나오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닦치는 대로 나온  
구멍에다 뽕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뽕 놓으면 지워지니까요. 저 녹음테이  
프를 지우듯이 말입니다.

세번뇌다 추번뇌다 하는 데 그건 이름  
이지요. 사람마다 경계마다 번뇌는 가지  
가지일 터인데 미세한 번뇌든 거친 번뇌  
든 다 놓고 가야 하는 데는 다름이 없습  
니다.

다만 번뇌가 번뇌인 줄 알아서 나온  
자리에 뽕하는 수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번뇌라고 할 것도 없이 번뇌가 보리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거기에 얽매어서 울고 불고 뿔쳐 버리려  
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런다면 큰 것  
은 큰 것대로 놓고가고 거친 것은 거친  
것 대로 놓고 가라, 그것만이 번뇌를 다  
스리고 녹이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어쨌거나 번뇌가 번뇌인 줄 알아서 거  
친 것든 미세한 것든 놓아줄 게 아  
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탓으로 돌리고  
나온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하겠지요. 그  
래서 늘상 하는 말인데 좋은 것은 감사  
하게 생각해 놓고, 나쁜 것, 안되는 것은  
현생과 돌려서 놓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름이 없으면 생각하기도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참나  
라고 했고 때로는 진여다 뭐다 했지요.

나는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나를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한 그 장본인이 있는데, 마치 저 나무의  
뿌리라고 저 배의 선장 같은 그런 주인  
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밖으로 달리 무엇을 믿을게 있었습니까?  
내가 내 주인을 믿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만들  
어 놓고 끌고 다니니 제대로 작용을 하  
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할 일 아니냐 이  
거죠. 가령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  
그걸 설거한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  
듯이 이 몸도 자기가 형성시켰으니 자기  
가 잘 알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공을 믿고 맡기라 하는 것  
은 '주인공, 야! 이 몸이 이렇게 잘 안들  
아가게 해 놓으면 어쩌냐?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너 밖에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통신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통신이 되질 않으면 그냥 캉캉하니까  
병원엘 가든 약국엘 가든 일단 밖으로 찾  
고 바깥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니 제가 가장 잘 알아서 할 것이라

### 가르침대로 실천 잘안돼...

한 달에 한 번 법회에 참석해서  
선법을 듣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는 한동안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노력  
하다가도 얼마간 지나면 그게 잘 안됩니다.  
다. 그럴 때는 법회 때의 분위기가 느낌  
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  
찰이나 내 생활공간이나 다르게 있지 않  
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약을 끼우는 것은 약이 떨어지면 소리  
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처음 배우  
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씬이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다 알게 되면 자  
동적으로 전력이 들어 오게끔 되어서 끝

다. '불성과 영은 다르다.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모습없는 마  
음을 말하는 것이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뜻을 여  
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  
다.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불성이라 하면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방편상 불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불기둥은 나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하늘과 땅, 지구와  
별들까지 다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하자면 천지만물이 다 이 불기둥을 끼고  
수레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사윤회도, 일체가 그렇게 돌아가듯이  
이 기둥을 끼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바퀴가 구르려면 축이 있어 힘을 받쳐  
주어야 하듯이, 또 저 맺음이 돌아가려면  
한 가운데 심봉이 딱 맞춰져서 저는 돌

## “정신세계·물질세계 본래 둘이 아닌 것” “고장난 기계 잘 고치는 사람은 설계자”

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인공! 해  
주시오' 하고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냥이죠. 그냥, 통  
신이 되니 안되니 할 것 없이 즉박이냐  
까 무슨 말인가 안 말인가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 이 도  
리를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병원  
엘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그냥 밥먹  
는 일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뭘  
먹는데 먹고 싶지 않다면 안 먹을 것이  
고 그런 것은 먹는다 해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달리 무슨 생각을 지어서가  
아니라 이 도리를 아는 사람에겐 밥 먹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죠. 밥도 약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서 주인공과 통  
신이 된다면 약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하  
는 말이 따르지 않겠지요. 밥도 약이고  
물도 약이고 약도 약이니 구분해서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밥은 약이 아니고 약이니 약이  
다 이렇다면, 금방 '아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낫겠지' 이렇듯이 '아이고 선  
생님 낫 좀 살려주세요' 이렇거든 말입  
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게 됩니다.

어 오고 말고 할 게 없으니 짚어 오든  
안오든 일체처가 다 도량이 되겠지만 그  
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만 내가  
다시 약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엘 다니면서 공부를 배울 때도 과정  
을 다 마치면 더 다니지 않듯이 말입니다.

### 마음의 발전소 돌리는 법

저는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입  
니다. 스님께서 마음의 발전소를 돌  
리라는 법문을 하시는 걸 듣고 크게 느  
낌을 받았습니. 아무쪼록 마음의 발전  
소가 계속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발전소는  
힘의 한계가 없는 발전소입니다. 물  
질세계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내가  
항상 말하듯이 마음의 발전소는 보이지  
는 않지만 한계가 없습니다. 거기엔 말다  
가깝다도 없고 크다 작다도 없습니다. 마  
음과 마음이 통해 불이 들어오는 데는  
빛보다 더 빠릅니다.

바로 누구나 갖고 있는 여러분의 발전  
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열심  
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과 영, 어떻게 다른지

한양선원에서 발간된 책자를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

지 알게도 되고 맛을 보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주인공! 하면 티끌하나 빼놓지  
않고 전체를, 내 자생중생들을 똥똥 아울  
려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를 알  
아야 잎도 알고 가장귀도 알게 되고 한  
찰나에 밝아지는 도리가 있다, 그것이 바  
로 이 공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이나 하고 따져서 알아 먹으려 한다면  
더더기도 하겠지만 반쪽 밖에는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앞 뒤 가리지  
말고 딱 목판에 얹어지듯이 그대로 꽉!  
얹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주인공'을 방편 삼을까

스님께서는 여러가지 법도와 방  
편 대신에 주인공 공부로 한가지 방  
편을 삼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도리를 깨  
우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애당초 마음 도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드리기 위해 주인공을 세워 놔습니다. 그  
래서 공부를 당겨주려고 불상을 치워보  
기도 했고 부처보기도 했습니다. 그랬  
더니 신도들이 야단이었습니다. 짚에 오  
니 안오느니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도 안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너무를 관습에 쫓겨서 있으니 그  
랬던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돈을 천원 시주하든지 만  
원을 시주하든지 그게 공덕이 되려면요,  
그걸 내가 한다 하는게 아니라 주인공에  
놓고 맡기고 주인공이 한 것이다 하면  
공덕이 됩니다. 물론 받아 쓰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 제사지내는 법이나 예법에  
대해서도 일거일동을 가르쳐 드린 겁니  
다. 가령 마음을 법으로 하면 삼배나 구  
배나 삼천배나 하는게 따로 없다, 그러  
니 여유가 없을 때는 일배를 하면서도 삼천  
배를 한데 합쳐 일배로 해도 된다고 말  
했습니다.

지금쯤 뭐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못사는 시대라고 봅니다.

제사 지내는 법을 간편하게 한 것도 그  
렇고, 조상을 모실 때 저 영담을 세워서  
하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자손  
들이 일년에 한번이라도 조상의 묘를 찾  
아 불꽃 말까할 겁니다. 게다가 이 땅 당  
어가 좁은데 산소를 썼다가도 파내야  
할 일이 생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화장해 버리고 하는데 그런걸 돌아보면  
탐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대를 이어 모

졌다'고 하지요? 옛날 어느 조사님이 제  
자를 보고 '이놈아, 네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육  
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이 육신이 깨달  
는 게 아니라 덜 떨어졌으니 나온 자리  
로 다시 들어가서 마음으로 탄생을 하라  
고 한 것이지요. 내 나온 자리가 어딤니  
까? 자궁! 나의 궁이다 이거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들어서는 안됩니  
다.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한  
것은 네 궁, 네 집, 이 육신도 내 집인데  
네 속에서 너를 발견하라, 네 몸통이 속  
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  
기입니다.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고 주인공에다  
일입하고 놓는 것은 앞서의 입력을 폐지  
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공  
공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한번 돌아다 볼 줄  
모르고 그냥 밖으로 또달리니 눈에 보이  
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매여 허덕이며  
다니거든요 지금, 그러니 어느때 꼭지가  
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뛰면서도 고개를 숙  
여 자기를 보라, 심안으로 자기를 보아라  
한 겁니다. 주인공! 이지요.

옛날 중국에서 한 때 스님들까지도 육  
신무예를 익힌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지  
방마다 고을마다 왕이 있어서 수탈을 하  
고 절을 부수고 하니까 그런 수행도 안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세상엔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가령 속지법을 한들 몇 조금이나 하겠  
습니까? 잠깐 사이에 서울 부산을 오가  
는 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신무예를 해야  
시대입니다. 또 정신이 없다면 이 몸통이  
를 움직여가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가깝  
게 두고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사랑을  
찾아 해매대사야 말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주장자를 끼고 다니면서 제  
주장자를 못 본다면 얼마나 못한 일입니  
까?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물어보면 마음대로 산다고 하겠  
지만 자유가 없어요. 마치 자석에 달라  
붙은 쇠붙이처럼 자유롭지 못한단 말입  
니다.

그래서 말이죠, 죽으나 사나 너 자신을  
형성시키고 너를 끌고 다니는 네 주장자  
를 믿고 일체를 맡기고 가라고 거듭 거  
를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래도 되  
는건가?' 이러는데 실사 깨우치진 못하  
나 해도 받아줄을 꼭 잡고가야 지혜도  
열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몸을 바  
꿀 때도 떴땀할 수 있지요.

또 당장은 내가 할 수 없더라도 조금  
씩 체함을 하다 보면 할 수 있게끔 되는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처음 입사했는데  
그냥 직원으로 들어 갔더라도 열심히 하  
다 보면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하  
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실력도  
생기고 배경도 생기듯이 받아줄을 잡고  
가다 보면 맛도 보고 위로 조상대의 책  
도 생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서 들  
이려면 틀이고 거부하려면 거부하고  
이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자기  
를 리드하고 거들고 보호하면서 지혜도  
열리고 말입니다.

그래야 자유롭죠. 자유자재권이 있어야  
참으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 입니다.

예전에 조사님들이 부처님을 때려 죽  
인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 짚어  
삼킨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든지 뭐든  
지, 부처님이 수만이나 된다 해도 한참  
에 집어 삼키는 거, 그거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그렇게 집어 삼키는 겁니다. 부  
처님이니까 높아서 집어 삼킬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인공! 하면 전체요, 전체가 궁근고  
전체로 통합니다. 그러나 이 방편, 저 방  
편에 또달리고 의식하고 법도 찾  
고 아니라 주인공 그 속에다 놓고 그 속  
에서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 결론 주인공